박원자의 母情佛心 31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



▶ 한줄 요약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직장을 그만두고 출가를 시도한다. 배고픈 거지도 그냥 보내지 않았던 신실한 불자인 모친은 크게 상심했다. 잠시 출가를 미룬 자우 스님은 이후 백흥암으로 출가했고, 결국 모친도 인정하게 됐다.

"저는 스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림 · 박구원

배고픈 거지 그냥 보내지 않던 모친
"출가하겠다"는 셋째 딸 결심에 시름
두 번 시도 끝에 출가… 모친도 인정
이젠 엄만 수많은 생명위해 기도한다

자우 스님이 마흔 살에 서울 홍제동에 비로자나국제선원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도 분들과 성지순례를 떠난 송광사에서의 일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노보살 한 분이 스님을 불렀다.

"스님, 무서워요!"

이때 스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아, 스님이라는 존재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구나, 저렇듯 연만하신 분들이 자식 같은 나에게 무섭다며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스님이구나!' 당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느꼈다. 그때부터 스님은 자신과 인연이 닿는 불자들이 마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서원을 더욱 견고히 했다.

스님은 지금도 길을 지나가다가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합장하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며 속으로 발원한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풀리길, 그대가 평안하시길!"

뭇 생명 모두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고 사는 스님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각별히 챙기시던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다. 스님은 강원도 영월의 작은 면 소재지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대여섯 살 때 어느 봄날의 기억이다. 어머니는 밥을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을 보면 집으로 불러들였다. 해지고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에게 '옷이 이게 뭐니' 하시면서 옷을 벗기고 아버지가 입던 옷을 입혔다. 그리고 마루에 상을 차려 따뜻한 밥을 먹였다. 옆에 앉아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냈느냐' 고 따뜻하게 묻는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돌봐야 할 자식이 여섯에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는 한편 밭농사까지 지은 어머니였다.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는 부모가 모심고 밭 매러 나간 사이 혼자 놀다 흙투성이가 된 옆집 아이를 보면 데려다가 씻기고 밥을 먹여 보냈다.

셋째 딸 자우 스님도 어려서부터 유난히 마음결이 고왔다. 동네에 놀림 받는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지능이 낮은 데다 얼굴은 뱀처럼 생겨 동네에서 부르는 이름이 '뱀구리' 였다. 그 애의 부모가 뱀을 많이 잡아서 그렇게 태어났다고 동네 어른들이 말해주었다. 그 애와 아무도 놀아주지 않았다. 대여섯 살의 어린 나이에도 친구 하나 없는 저 애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항상 그 애와 놀아주었다. 애들이 저런 애랑 논다고 놀려도 '불쌍한 친구와 놀아주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고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어디를 가든 화려한 사람보다는 수줍어하거나 외롭게 앉아 있는 사람이 먼저 눈에 띄어 그 사람 옆에 앉아 이야기하곤 했어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던가. 참, 타고난 수행자다.

일곱 살 때 읍내로 이사 왔을 때도 어머니는 늘 바쁘셨다. 구멍가게를 하고 틈틈이 농사를 지어야했던 어머니는 찬바람 휭휭 부는 겨울밤이면 걱정스런 얼굴로 말씀하곤 했다.

"우리 집에 오던 아무개는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얼어 죽지나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옆에서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워있던 여섯 딸들도 '맞아, 그 사람 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며 잠들곤 했다. 항시 어려운 사람을 잘 돌봐야 자손이 잘 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던 다감한 성정의 어머니였다. 하루는 학교에 가기 전 아침상 자리에서 딸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어젯밤에 옆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가봤더니 그 집 아들애가 부모님이 등록금을 안주어서 중학교에 못 가게 되었다며 서럽게 울고 있더구나. 그래서 엄마가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왔단다."

인정 많고 성실한 부모님 덕에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 면사무소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어머니만큼이나 부지런하셨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일하고 출근하셨고, 퇴근 후에도 논에 다녀와 저녁을 드셨다.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 으레 밭으로 가서 일을 돕는 게 집안의 불문율이었다. 휴일엔 식구들 수대로 도시락을 싸서 버스를 타고 예전에 살던 시골집 근처 밭으로 가서 일했다. 아버지가 식구 수대로 밭에 늘어놓은 호미를 하나씩 집어 들고 딸들은 밭을 맸다. 밭 매는 일과 하나가 되었던 무념, 무상의 시간이 길어진 날엔 버스가 끊기기도 했다. 그러면 먼 길을 걸으며 식구들 모두 노래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행복한 가족을 내려다 볼 때쯤, 딸들이 소리치곤 했다.

"와, 저 별들 좀 봐. 아름답지 않아?"

언제나 호호,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던 이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던 중 아들이 태어나 6녀 1남이 되었다. 어머니는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얻고 기뻐하셨다. '3천배를 하면 부처님이 한번 돌아보신다고 하던데' 라는 어느 절 큰스님의 말씀을 듣고 3천배를 한 끝에 부처님오신 날에 아들을 낳았던 터라 신심이 한껏 깊어지셨다. 아침마다 두 시간 동안 '능엄주', '신묘장구대라니' 등 수행을 깊이 했다. 절 일을 도맡아 하셨다. 차를 몇 대씩 대절해서 성지순례를 가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그런데 신심과 딸의 출가는 또 다른 문제였던 것일까. 어느 날 셋째 딸이 출가에 대해 은근히 떠보자 어머니는 펄쩍 뛰셨다. 왜 안 되느냐고 묻는 딸에게 어머니의 답은 간단했다.

"내 딸이니까 안 돼!"

신심이 워낙 깊으시니까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왔다.

잔잔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듣고 스님께 물었다. "웃음꽃이 만발하던 집에 정적이 감돌았겠네요. 다정다감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스님의 출가 동기가 궁금합니다."

"원주로 나와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우연히 어느 절 고등부 법회에서 하는 〈반야심경〉 강의를 듣고 불교에 매료되었죠. 수학과 과학을 좋아했는데 불교가 과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내내 법회에 나갔고 대학에 들어갈 땐 물리학과를 선택했죠. 나름 불교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출가를 고민하게 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다가 잠시 쉴 때였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에 관심이 많아 연등국제회관에서 영어로 불교를 가르친다기에 찾아갔다. 공부도 하고 회관의 일을 도와주며 지내고 있을 때 무진 스님이 출가를 권했다. 눈빛이 푸른 외국인 비구니 스님이었다. 싫다고 했다. 만날 똑같은 옷, 똑같은 머리스타일의 그 재미없는 스님 생활은 꿈도 꿔보지 않았다. 자연의 섭리대로 결혼할 거라고 했더니, 무진 스님이 직격탄을 날렸다.

"결혼은 바보나 하는 거야. 너는 바보가 아닌데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충격이었다. 공부를 마치면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여겼다. 무진 스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면서 영원한 사랑은 결코 없다고 했다.

"출가는 작은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을 선택하는 거야."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집 앞에서 연인을 기다리다 꽃을 선물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던 남자도 결혼을 하고 나더니 바로 싸우기 시작했다. 결혼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들 즈음이었다. '지혜로운 자를 만나지 못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는 〈법구경〉의 구절이 눈에 쏙 들어왔다. 청주 안심사에서 매일 2천배씩을 하면서 〈지장경〉을 읽다가 드디어 결심했다.

"지장보살님이 지옥의 중생들을 보고 저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저들을 잠시라도 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구절을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출가가 이런 길이라면 가치 있는 길이겠다 생각하고 출가를 결심했죠."

집으로 돌아와 울산 석남사로 출가한다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왔다. 사흘 만에 큰언니가 석남사로 찾아왔다. 강인한 어머니가 매일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다고 했다. 딸이 산으로 갔기에 산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면서 울고 계시다고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약해졌다.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고향집으로 갔더니 어머니가 죽은 자식 살아온 듯 좋아하셨다. 혹여 내가 잘해주지 못해 집을 나간 것이 아닌가 싶었던 어머니는 값비싼 옷도 사주셨다. 운전면허증을 따라며 학원에 등록도 해주셨다. 어머니께서 여한이 없도록 주시는 것을 다 받았다. 행복해하는 어머니 곁에서 한 달을 보내고 서울로 가서 취직하겠다며 서울 집으로 갔다.

언니, 동생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주일 만에 집을 나와 은해사 백흥암으로 갔다. 다행히 행자생활이 끝나고 수계를 할 때까지 식구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훗날 어머니께서 여쭈니 '출가한 자식을 잡아놨는데도 다시 출가한 것을 보니 아이고 팔자인가 보다 했다' 고 하셨다.

아버지에게 '당신이 절에 다녀서 아이가 출가했다' 며 원망을 받았던 어머니는 딸이 수계를 하자 모든 것을 수용하셨다. 있는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인생임을 아신 어머니였다. 자식의 출가와 함께 당연히 기도도 수행도 깊어졌다.

"아침 기도 때마다 제가 훌륭한 스님이 되기를 발원하고 있다는 말을 어머니께 들었죠. 중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스님인데, 그 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어머니시구나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올해 여든두 살이신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 자우 스님이 진행하던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던 방송을 들으며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산천의 아름다운 소식을 댓글로 전했다. 딸 스님은 영월의 꽃 피고 뻐꾹새가 우는 고향 소식을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항상 일기를 쓰면서 갈고 닦았던 어머니의 빼어난 글 솜씨가 딸 스님의 방송에서 빛을 발했고, 시청자들은 감동으로 어머니 김옥녀 여사의 마음을 읽었다.

스님의 어머니는 이제 딸 스님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지침이 없는 딸 스님이 어머니 눈에는 이미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이다. 〈작가〉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